

사교육비 문제로 본 한국교육의 현실과 그 대안

1. 들어가는 글

지난 스승의 날을 맞기 며칠 전의 일이다. 학교를 찾아 온 몇 분의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스승의 날에 대한 말을 꺼내게 되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지 않고 아이들의 간단한 편지나 꽃 한 송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찾아 뵙지 못하는 지난날의 은사님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가르치는 날이 되어야지 지금 담임에게 선물하고 끝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 그때 어머니들로부터 그 동안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솔직한 심경을 듣게 되었다. 올해 학교 담임이나 작년 담임 등 선생님 몇 분만이 아니라 인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녀의 교육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었다. 여러 곳의 학원 선생님들, 원장, 과외 선생님, 눈높이 등의 학습지 선생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를 하는 경우에는 지휘자, 반주자 선생님까지, 심지어는 학원 봉고

차의 운전기사까지 쟁겨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거기에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 과목의 담당 선생님들에게까지 일일이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실로 스승의 날 하루 선물 값만 해도 수십 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선생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졌을까. 사명감 하나만으로 교단에 서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이젠 타직종에 비해 낮은 보수와 갈수록 떨어지는 사회적 대우와 그에 비례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존경심에 더 이상 꾀없이 인내하기 힘들어지는데, 왜 이리 힘든 직업을 택하고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사교육에 관한 문제만큼 학교 선생님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 같다. 정말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마다, 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남겨서 유익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에 가야 할 시간을 뺏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대형학교라서 한 학기 내내 이름도 외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볼 때마다, 또 학교 근처에서 보게 되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 모를 때, 내가 자기 학교 선생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절름발이 교육이 장기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학생들의 창의력을 약화시켜 결국 지금의 사회적 혼란과 국가 경쟁력 추락이라는 난국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는 누구나 다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막상 부모의 입장이 되어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앞에서는 그 신앙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도대체 수많은 원인들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이 문제를 풀 길이 없다고 한다.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도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과연 누가 나서서 우리의 이 망가진 교육을 고칠 것인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본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려고 하였다. 사교육의 문제에는 어떤 측면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기로 하자.

2. 문제의 실상

오늘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이다. 이 문제가 요즘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의 정도가 지나쳐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왜 과외를 둘러싼 사교육의 사태를 문제삼게 되었는지 그 실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로,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게 되는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현재 공교육비가 18조원이 되는데, 사교육비는 20조원이 넘고, 가구당 월평균 43만원을 과외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는 매일 야근을 하고,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정도가 지나쳐 아버지는 부정한 돈의 유혹에 흔들리고 몸을 파는 어머니까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샐러리맨들은 월급에서 과외비를 떼어놓고 나면 허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과외비 때문에 빚을 얻는 사례도 드물지 않고 과외비 부담이 힘에 겨워 이민까지 떠나는 현실이다.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시키지 못하는 부모에게는 공연한 죄책감과 박탈감으로 삶을 짓누르는 우리 시대의 짐이다. 또한 요즘 국가경쟁력 저해 요소로 지목된 고임금·고비용의 강력한 유발 요인이기도 하다.

둘째로, 모든 비리와 부패의 정점에는 과외가 있다는 말처럼, 더 이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이다. 비리학원의 대표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교육위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듯이, 과외 열풍으로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학원들이 장부 조작을 통한 탈세, 법정 수강료를 초과하는 고액 수강료 징수, 불법 과외 알선,

무등록 운영 등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가며 돈벌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학원의 부교재와 모의 수능·논술고사가 채택료를 미끼로 학교에서 팔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과외학원에 소개해 주면서 대가를 받는 등, 학원과 일부 학교와의 공생 관계 또한 사실로 드러났다. 더 비극적인 것은 관례적으로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가혹한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여 힘없고 말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입시 산업과 과외 교사, 일부 학교 교사의 처부를 위한 불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셋째로, 학교 교육이 입시 산업에 지배되고 있다는 교육적 이유에서이다. 이 지경이면 교육의 원류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고, 교육철학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경제 논리인 셈이다. 교육의 본질과 원칙은 파괴되고, 학생의 학습 방향은 왜곡되며,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이란 미래 지향적인 목표는 무시되어 버린다.

3. 문제의 원인

이상 살펴 본 엄청난 해악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역사적인 형성물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고쳐질 것이 아니라고 한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을 낳은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우리의 엘리트 선발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능력 사회라기보다는 학력 사회라는 점을 반영한다. 실력보다는 학벌주의가 판을 치고,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 대졸자들에게만 취업, 보수, 승진, 결혼 등 거의 모든 면에 특혜가 부여되는 인간 차별의 풍토야말로 우리의 교육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특정 명문대학 출신에게만 엄청난 사회적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현 고용체제 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유능한 인재들

이 활약할 공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틈으로서의 커리어가 몇 개 대학 졸업생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에서의 금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잠재력, 가능성보다는 고액과외를 받고 학원에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사치가 필요하므로, 돈에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력주의에 위배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이라고 할 학력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영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우리의 교육은 주지주의를 표방한 관료적 교육제도로서 학문의 목적은 주로 정부에서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덕적, 이지적으로 탁월한 소수의 지배계층을 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거제도와 학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입신양명의 출세와 명예, 권력, 부 등을 확보하는 것이며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였다. 이런 전통은 아직도 학력과 학벌로써 한 사람의 인간됨을 평가하려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곧 출세이며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라는 세속적인 관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우리의 교육열은 학문적 탐구열이나 진리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열망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토록 공부에만 몰두하게 했으면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자가 벌써 많이 나왔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수상자 하나 없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2003년이 되면 대학 정원보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수가 적어진다는 점을 들어 치열한 경쟁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명문대학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유지를 위해 명문대학 입학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국민은 자녀의 일생이 걸린 사교육비 지출을 계속 감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대학교육이 미래의 지도자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하여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양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만능을 요구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성 신장이 아닌 무한 학력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넷째로,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체제가 질적으로 완벽해서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사교육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개별 지도를 할 수 없는 과밀학급과 교사의 과중한 수업 시수와 잡무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소규모 지도를 하는 학원과 경쟁을 할 수 없다. 실제로 중상류층의 부모를 둔 덕에 개인교습을 받는 꼬마 영재나 고액 과외를 하는 우수 고교생의 경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보통학생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는 그만두고 아예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과외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딱한 경우이다.

다섯째로, 현실적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쉬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학원이 방과 후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을 붙잡아 두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열망보다는 대형 학교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학습과 무관한 생일잔치, 소풍 등으로 아이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여섯째로, 학부모의 심리와의도 관련이 있다.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교육관, 불안 심리, 경쟁 심리, 전반적인 과소비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자기 자녀만은 남달라야 한다는 비뚤어진 치맛바람이나 세상이 주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진정 자녀에게 유익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부턴 영어 교육이 실시된 이후, 유치원에서부터 미리 영어를 배워두어야만 나중에 진도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젊은 부모들이다.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워야만 안심이 되는 조바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4. 기본적 지향점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본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열쇠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변화를 이해하고 이끌어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첫째, 올바른 신앙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의 사태는 자녀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이상으로 삼는 시대 정신과의 영적인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은 자녀를 이상으로 삼겨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멸망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삼상 2)를 통해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두 아들이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음(삼상 8)을 숨기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주지시켜 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들 할 말이 많다. 어느 면에서는 누구나 다 전문가들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과외를 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탄식하지만 우리 집 애만 안 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

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요령과 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공부만 하느라 너무 고생한다고 걱정하지만, 학력 외에는 대안이 없기에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부하는 시늉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인간 전체의 극히 일부인 지식 습득을 위해 12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왕자와 공주로 자란다. 그러고도 부모들은 아이들이 훌륭하고 올바른 인간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 문제의 해결을 바라다면 이러한 이중성을 버리려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부모의 불안과 염려만으로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일류대학 졸업장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자식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보다 대학의 권능을 더 의지하고 있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아이들에게 무어라고 가르칠 것인가?

먼저 지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학문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의 필요를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성경적 인간관은 아이들이 지식을 쑤셔 넣을 수 있는 빈 항아리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치로운 것을 분별하며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통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학습한다. 또한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차원에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엘리트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재주는 사회 공유의 것이다'는 공인 의식을 심어준다고 한다. 더욱이 1주일의 하루는 봉사를 하도록 하는데, 전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에게서 결정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는 공인 의식

이 없다. 단지 사회적, 물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겠다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이용될 뿐이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 현실적인 경쟁의 장인 학교 안에서 우리는 친구를 경쟁 상대로가 아니라 내 지체로 여길 수 있는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에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는 결국 우리의 교육이 견고한 성경적 기초에 놓여져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지금 세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의 주역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이해했던 선조들의 생각처럼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지향한다. 그러나 미래를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단지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수동적 인간을 만들기 쉽다. 가능한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를 선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그릇된 미래상은 교육적 노력의 적합성을 깨뜨린다. 변화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현재와는 급격히 다른 어떤 미래가 갑자기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내일의 세계가 기본적으로 오늘과 그리 낯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암리에 가정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미래보다는 현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획일적 교육규제와 사회체제에 적응해 오는 동안 우리들은 지금의 것과는 다른 경쟁방식이나 교육체제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줄 모르게 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벌써 시작되고 있다. 명문대학만 졸업하면 평생 장래가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조기 퇴직, 명예 퇴직, 감원 선포의 회오리 속에서 학력 사회의 교육관과 교육 체제는 더 이상 미래에 적합치 못함이 드러나고 있다. 전인 교육과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지금의 절름발이 교육체제로는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21세기는 자연자원이나 자본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보화 시대가 된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생성, 소멸 주기가 짧아 새로 취득해야 할 정보의 양이 엄청난 사회가 되므로 교육 적령기가 따로 없이 평생동안 계속해서 학습해야 하는 평생학습사회가 된다. 그러므로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고 축적해 놓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정보수집은 간단하다. 지구상 어느 산골 오지에서도 컴퓨터 단추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 즉, 창의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 하나만으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창의력이 제 1의 무기가 되고 재능과 개성이 무기가 되는 시대,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시대가 온다. 출신이 어떻든, 학력이나 배경이 어떻든 오직 그가 지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는 간판이 필요치 않다.

틀에 박힌 우리의 교육 제도와 환경, 부모의 고정 관념으로는 결코 이런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독창적인 발상을 가능케 하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이상 급한 일은 없다. 아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으로 무슨 일인가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통적 주입식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해답을 찾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이들의 삶 속에도 여백이 있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쏟아 붓는 의미없는 지식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자기 머리 속에서 자

기 것으로 소화해 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숨은 자질을 찾아내어 길러 주되 성적이 연연해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학생들을 각각의 개성이나 소질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소질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매달 실시하게 되어 있는 책가방 없는 날에 현장학습을 나갈 때마다, 아이들의 무질서와 무례함을 실감하게 된다. 박물관에 가면 전시품에 손을 대고, 식물원에 견학을 가면 관찰을 한답시고 꽃잎을 따고 나뭇가지를 꺾고, 극장에 가면 시종일관 소란하고, 전철을 타면 자기들 세상인 양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꼭 지켜야 할 타인 존중의 정신, 이러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윤리는 세계화 시대에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것을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품위마저 부족하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 일일이 가르칠 수는 없다. 이는 부모의 몫이다. 단지 상대적인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단견에서 벗어나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많은 학원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미술관, 경기장, 음악회, 극장을 함께 찾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가끔은 고급 식당에 가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많은 경험과 자극을 주고 그 환경에 걸맞는 차분함과 정숙함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또 다른 가치는 공동체 안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청치기로서 살아가기 위한 시민성의 회복과 봉사정신이다.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사회가 되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공존, 공영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원래 하나인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인적 자원의 특성이 자율적인 인간, 그리고 자신의 일을 통한 성공이나 성취감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일의 보람과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통합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공동체에 머물기 원하고 공헌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다. 많은 보수나 승진보다는 보다 어렵고 책임 있는 일로의 이동과 업무상 만족감을 원한다. 이들은 직장을 종신고용체제에서 처럼 평생 몸담아야 할 가족이나 공동체의 대체물로 보지 않는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기 직업 자체에 충실하고 새로운 모험 정신으로 도전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문제마다 혁신을 행하려는 의욕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상상력을 발휘한다.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으며, 어떤 공헌이 요구되는가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자신의 분야를 계속 개척하고 확장해 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제를 찾아내는 발굴자이자 해결자이다. 단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단순노동자와는 다르다.

아울러 미래사회에는 학습이란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동안 사회와 기업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학습 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앞으로는 조직 전반에서 학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팀이 어떻게 학습해야 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홀로서기식의 개인적인 영웅주의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조직이 요구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총체적 재능을 이용할 수 있는 조직만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조직은 한 팀이 되어 일할 때 전체가 부분의 합계보다 더 많아지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복잡

성 속에서 더욱 역동성을 갖기 위해 기업은 종업원들의 반복적인 기술 중심 시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학습과 품질 개선이 일상화되는 학습 시대에 적응해 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연마하는 숙련된 지식 노동자의 조직이 있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개척할 수 있는 초일류 기업이 되는 것이다. 조직 속에서 학습을 통하여 각 개인의 생각을 향상시키고 전체 구성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도태될 것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의 생존 여부는 그 학습 조직의 우수성에 달려 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각기 독특성을 가지며 역할도 다르지만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질적 성장의 연관성을 몸과 지체의 연관성과 같이 이해하고 개인주의적 학습을 탈피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체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한 교육 방향의 전환은 21세기에 전개될 사회에 알맞은 인간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 경제학적 접근에서 나온 결론이지만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맞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교육열에는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이는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유전처럼 내려 온 것으로 거의 우리의 국민성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교육 체제의 도입과 함께 교육을 통한 상류사회로의 진출을 꿈꾸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제3세계 사람들처럼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직

취직하여 가게를 돕게 하는 쪽을 택했다더라면 우리 경제는 지금처럼 풍요롭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중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학교와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피하지 않고 감수해 온 부모님의 강한 교육열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비난받는 대상이 되고 미덕이 아니라 오도된 교육관으로 평가절하된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우리 교육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학부모들의 오도된 교육관과 치맛바람이 우리 교육의 정상화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만 하면서, 학부모들을 혼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먼저 사회 풍토와 대입 제도 그리고 학교의 평가 방식 등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혼계로는 별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학부모들은 성적과 경쟁의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그들도 기본적으로 이 비정상적인 체제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면, 문제는 높은 교육열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가 아니면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는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높은 교육열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선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 교육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학부모는 교육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좋은 교육의 혜택이나 나쁜 교육의 피해를 받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의 비용은 세금이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돈을 내고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마땅히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엄청난 투자를 한 만큼의 기대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학력 향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부교재에 현

혹되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뜯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를 꼼꼼이 따져 보는 합리적 소비자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성경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책임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을 더 이상 공급자의 손에만 맡겨두지 말고 수요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것이 시민자치시대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관료와 전문가 손에만 맡겨 두었던 교육문제에 교육의 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교육의 주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동시에 책임을 감당해야 할 주체로 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사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과외의 전면 금지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와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배울 권리를 법으로 막는다는 근본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제도화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대다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위원회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도 학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원과 개인 등 과외 공급자는 의무적으로 국세청과 구청 등에 등록하도록 해 양성화하는 대신, 고액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의 불공정 거래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내년부터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별로 단속요원을 늘리고 불법과외의 고발장구를 활성화한다. 학원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공시하고 미등록 및 허위·과장 광고, 부당요금 징수, 불성실 세금 신고를 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학원비 고액화를 막고 운영이 투명화되도록 모든 수강료의 은행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학원의 준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

민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를 운영, 학원의 교육적 활동을 유도하고 불법 사례에 대한 고발 및 견제 기능을 갖도록 한다. 사교육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또 고액 과외의 주범인 고등학교 및 주택가의 소규모 보습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투자에 걸맞는 질적 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공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고액 과외를 둘러싼 탈법이나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과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오히려 학교 교육보다도 낮은 학원 과외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논술 과외가 갈수록 고액화되어가는 원인 중에는 아마도 각 대학의 출제진들과 쪽집게 강사들 사이에 출제 정보 교류를 둘러싼 뒷거래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논술 문제를 방대한 양의 문제 은행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실력있는 교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학교를 떠나 학원으로 몰려가는 현상도 문제이지만,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는 제도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신뢰할 수 없는 사교육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더 크게 우려된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학습지를 판매하거나, 교육에 대해 전문적 소양을 쌓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보습학원 교사가 되거나 손쉽게 가정 방문 지도를 하고 있다. 고소득과 자유 근무 시간이 보장되는 프리랜서라고 광고하고 있는 가정학습지 교사들도 실제로는 평균 170여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보습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자격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몇 년 전만 해도 상업고등학교 졸업자가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사 자격증을 갖지 못한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나 교사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중학생 학원 강사들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교육 서비스를 부모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으로, 엄격한 지도와 감독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정부가 스스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무나 교육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오늘의 비도덕적인 학원 비리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다.

둘째, 공교육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교사 확보, 교사의 과중한 업무량과 수업 시수 경감, 과밀 학급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위원회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점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학생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묶어 둔다거나, 위성 과외 방송 등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학교의 여건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교육의 실질적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충분한 투자 없이 양질의 인력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과외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만으로도 학습욕구가 충족되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소화하는 것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되게 해 결국 과외가 쓸모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력 중심의 사회 풍토와 엘리트 선발 방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 문화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비대졸자들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한 입시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 보아야 헛수고일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비대졸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작업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법제도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벌이나 간판에 의해 인간을 평가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실질적 능력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력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을 개선해 학벌 사회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기업들이 신입사원 응시자격에 대졸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말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 후

경쟁에 의해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보수나 승진 체계도 학력과 무관하게 오직 능력과 실적, 그리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안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 선발 방식을 좀 더 세련되게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제를 바꾸어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제대로 갖추고, 그 양성과정에 선발되는 시기를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 졸업과 더불어 사회적 선발이 최종 결정나다시피하는 성급하고 불성실한 단편적 인간평가가 아니라, 대학 학사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또 한번의 선발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고급 전문인력 선발과정 자체를 대학입시와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입시로 다단계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위원회의 방안에서도 연구 중심 대학원 대학에 대한 구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과 인재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가능성 있는 사립대학 몇 개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대학별로 5천억에서 1조원의 재정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해당 대학은 이의 전제조건으로 학부 모집생을 줄이고 그만큼 대학원 정원을 늘리게 된다. 예컨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이 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개편되면 더이상 학부 과정에서 일류 학과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에 따라 학부 입학을 위한 줄서기 경쟁과 과열입시 풍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개혁위원회의 설명이다.

넷째,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과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다양한 입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학교의 정상화라는 두 측면 사이의 조화가 비록 어렵긴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제이다.

사교육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수능시험 출제를 대

학 교수가 아닌 고등학교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교과과정을 대폭 시험에 반영해 과외보다는 학교 수업에 열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학습에 관한 것이든 품성에 관한 것이든 일선 고등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교사가 제일 적임자이다. 대학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학 입학 요건에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를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수능시험문제는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출제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겠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학습과 평가 사이의 이런 괴리가 바로 과외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수업과는 별도로 과외 학습을 통해 대입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심지어는 학교 교육을 경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자연히 고등학교 학습이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 또 이 때문에 대학은 고교의 평가를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입시에서는 우수한 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평가 제도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처사로서 창의력을 기르고 각자가 보유한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독창성과 상상력,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라면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사회봉사 활동이나 학생회의 간부로 활동했던 경험 등이 크게 참작되어야 한다. 리더십이 있는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향이 있는가, 운동이나 예능 등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 담임 선생의 추천서 속에 그 학생의 품행, 덕성 등에 대한 좋은 언급이 있는가 등등 외국의 명문 대학들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학생 선발에 대한 전인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총괄하는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공정성만을 내세워 평가 성격이 다른 수능시험과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합산해서 총점 석차제로 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는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어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의 소지자들을 적절히 가려 뽑을 수가 없다. 자연계열 학과가 요구하는 능력과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요구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또 같은 인문사회계열이라 하더라도 국문학과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경제학과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서로 다를 것이다. 특히 의대계열이나 사범계열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봉사 정신이 지적 능력 못지 않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때문에 벌어지는 경쟁은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자기의 적성대호가 아니라 무조건 일류대학 인기과를 지망하게 되는 현실을 낳았다. 우리 나라의 입시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학습자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는데 몰두하는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다. 말하자면 입시제도가 경쟁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외국처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 난이도를 낮추고 시험과목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대입정원의 1.5배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각 대학은 학과별로 전형방법을 다양화하여 총점순이 아니라 그 학문분야의 발전을 위한 소양이나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재수의 길을 가면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오로지 입시를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입시 현실에서는 부모도, 학교도, 대학도, 아무도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입시제도를 어떻게 고치든 오로지 교육부 당국만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선진화, 다양화될 수록 정부가 국민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유독 교육에서만

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의 비효율적인 폐단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대학은 자기 학과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 자유경쟁체제에서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들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학생의 입학과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세계적 수준에서 그 분야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입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특차 입학시켜주는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융통성있게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차피 학원이나 과외교사에게 바칠 돈이라면 차라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 안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미래사회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전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열이 생산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경쟁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켜어야 하는 경쟁은 대부분 개별적인 상대평가제도에 의한 경쟁이다. 집단 구성원간의 협동에 의한 성취나 다른 학생과는 상관 없는 자신의 절대적 성취(과거에 비해 훨씬 발전되었지만 등수와는 상관 없는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의미를 부여받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는 대개 틀린 문제의 개수나 점수, 또는 등수로 평가받는다. 지나치게 개인 능력만을 측정하는 이런 교육방식에서는 아무리 교육여건이 좋아져도 과외를 근절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개인별 경쟁체제를 줄이고, 열린 교육과 협력 학습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협동심과 봉사 정신의 부족은 바로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상대적인 학생평가제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왕 하는 고생이 좀 더 값진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학습 능력 만이 아니라 협동해서 공부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함께 평가받는 방식과

스스로의 과거와 비교하여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평가하는 절대기준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친구를 눌러 이겨야할 경쟁자가 아니라 내 지체로 여길 수 있도록 학교가 경쟁이 아닌 협동을 배우는 장이 되고,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얼마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되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여 내신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는 입시제도를 활용하여 입시교육이라는 비교육적 흐름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의 좋은 취지가 현실적인 여건의 미비로 퇴색하고, 여론에 밀려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 봉투를 내밀며 자녀의 점수를 구걸하는 어머니들이나 시간수를 불러서 허위로 조작하기 등의 변칙적인 사례가 들려오고 있다. 봉사활동을 시간의 양으로 따져 획일적으로 내신화해서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하고 있는 일은 지침과 공문의 시달이 전부이며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 손에 봉사활동확인서 하나만 달랑 쥐어준 채 봉사활동을 해 오라고 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입시준비가 지배적인 학교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순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봉사활동은 많은 교육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들의 삶이 있는 생활세계와 고립된 채 학교와 가정, 학원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차 자신들이 살아야 할 사회라는 드넓은 바다를 잠시나마 헤엄치며 호흡하게 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과수업을 봉사활동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종이 속에 묻힌 창백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남을 위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안락한 보호와 풍부한 소비 속에 성장한 자기중심적 세대에게 노동의 힘겨움과 보람, 남을 돕는 데서 누리는 성취감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을 키워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손 돕기나 불우이웃돕기 정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기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충실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과 학교의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당장의 전시 효과를 노린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더 이상 곤란하다. 이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애쓰는 교사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입시교육현실을 비판하면서 우리 또한 입시교육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교육개혁안으로 일만 늘어났다는 냉소주의 역시 문제이다. 교사들의 이러한 사고와 자세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역시 봉사활동을 시간 때우는 활동으로 밖에 인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소규모 사립학교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외비를 학교 등록금으로 전환하여 학교에 투자할 수 있다면 학부모의 큰 부담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사교육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순보다 더 교육적인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맞지만 하면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훨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설립, 정원의 조정,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등 교육의 전과정을 교육당국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의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보다는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교육과 사립학교 교육을 모두 독점

하고 지배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떤 뾰족한 수도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 교육만이라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그래도 교육의 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급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교원단체를 인정하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교육개혁에 대해 교사들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이유는 개혁이 위로 부터 내려오면서 교육관료들이 주체가 되고, 현장교사들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조직하고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학원 비리에 대한 대책을 얼마 안 되는 단속반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스스로 교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6. 나오는 글

임계질량(critical mass)이라는 아이디어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관습이나 상품, 종교체제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를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단 임계질량 상태가 되면 혁신을 받아들이는 나머지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눈사태에 비유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눈덩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아무 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수백만 개의 눈덩이가 수십억개가 되고 결정적인 순간이면 눈사태가 된다. 하나의 작은 흐름이 아주 큰 흐름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사회학자들은 인구의 13% 정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적어도 84%의 인구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날 교육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다. 선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앞장 서서 임계질량 상태를 가져올 사

람들이 누구인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만큼 리더십과 개혁 의지가 있는가.

우리 사회의 부패와 모순은 기본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제 자식의 교육에는 열성적이면서 학교의 운영과 교육정책 같은 공동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잘못된 태도와 의식들이 우리 교육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뼈아픈 자성과 회개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비용만 부담하면 부모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자녀의 공부는 학교와 학원에, 신앙은 교회에 맡겨 버리는 잘못을 버리고 부모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성경의 이념에 기초를 둔 교육철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로서 선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 땅의 아이들을 어떤 인간으로 기르고자 하는가. 어떤 유형의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가. 성적이 가장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세상의 헛된 이상을 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변화는 국민 여론의 일치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고, 논쟁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여론이 하나님의 법을 승인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관심과 안일함 가운데 주저앉아서 서로 일을 미루고 다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만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길을 제시하고 이 사회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정신적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회지도층들이 교육의 위기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기를 공감할 때라야만 집단이기주의에 연연하지 않는 총체적 개혁이 가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정치, 기업, 교육계의 지

도층은 너나 없이 일선학교의 교사 못지 않게 큰 교육적 영향력을 지닌 사회 차원의 교육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실제로 학력에 의한 인간 차별을 타파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고용, 임금, 승진 등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도층들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와 관행 속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과 혜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누리는 특권들 중 일부는 정당한 자기 몫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본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주는 양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당한 차별과 편견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의 보상체계를 바꾸는 일에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기꺼이 발휘해야 한다.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에도 반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범한 부모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회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들을 일깨우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교육적으로 유의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교육을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시혜라고 여기고 학교를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곳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바른 변화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해 가는 교육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들어간 사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회적 차별이 철폐되며 불의한 질서 속에서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경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복음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들로 인하여 사회가 온전히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卍

< 참고문헌 >

1.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 2차 보고서, 1995.
2. 피터 드러커, 나카우치 이사오 공저, 미래를 향한 결단, 중앙일보사, 1995.
 3. 엘빈 토플러 편, 이상주 김안중 역, 미래를 위한 학습, 배영사.
 4. 대안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지음, 새로운 학교 큰 교육 이야기 - 미래를 만드는 인간교육의 새 지평, 내일을 여는 책.
 5. 경실련, 경제정의, 지력사회의 신인적자원 (강철규), 1996. 12월호.
 6. 서울시교육연구원, 서울교육, 미래지향의 인간 육성과 교육 (곽병선), 1996. 봄호.
 7. 이시형,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지 - 젊은 부모를 위한 미래사회의 인재 키우기, 집현전, 1996.
 8. 김신일 외 공저, 시민의 교육학, 한길사, 1995.
 9. 해로 반 브루멜렌 저, 기학연 교육연구모임 역,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IVP, 1996.
 10. 양낙홍, 한국 사회와 문화 거듭나야 한다, IVP, 1996.
 11. 마이클 마퀴드, 앵거스 레널즈 공저, 글로벌 학습조직, 한국언론자료 간행회, 1994.
 12. 패트리셔 애버딘, 존 나이스비트 공저, 여성메가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 1993.